

# 에너지 기업들 '전력시장 개선' 길을 찾다

### 한국전력공사·전력거래소 등 150여명 에너지밸리 정례포럼 전력망 비즈니스 플랫폼 변화·정부 계획간 연계 등 개선 시급

빛가람에너지밸리 기관·기업들이 급변하는 전력시장의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거래소 등 에너지 관련 기업으로 구성된 (사)에너지밸리포럼이 16일 오전 21번째 정례포럼을 열었다.

이날 오전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린 포럼에는 한전·한전KDN과 협력사-에너지 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광주전남지역혁신연구회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전력시장과 분산자원 활성화'라는 주제 발표를 맡은 조영탁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전력시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전력수급, 산업생태계, 전력시장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전력망은 송전망에서 상업적 성격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이사장은 전력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분산형 설비에 대한 공적평가(용량 시장) ▲유연성 자원의 보상 현실화(보조서비스 시장) ▲설비입지에 따른 송전요금 차별화 ▲소매시장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발전 원가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정부 계획간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또 능동적 소비가 강화된 '프로슈머'로 바뀐 소비자 동향을 잘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국가전력산업의 핵심 주체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끝을 맺었다. 조 이사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행사는 질의·응답순으로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지난 2016년 9월 창립대회를 열어 시작

한 '에너지밸리포럼'은 광주·전남을 '미래 에너지산업 허브'로 만들기 위한 민간 포럼이다. 미래 에너지산업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는 기업들을 위한 정보교류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에너지밸리 포럼의 최종 목표다.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자치단체, 기업 등은 정례포럼을 열어 정보를 교류하며 협력하고 있다.

에너지밸리포럼 관계자는 "미니클러스터 운영을 통해 기업들 간 네트워크 구축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다"며 "포럼의 취지에 공감하는 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회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가 문의 010-2077-5881.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16일 오전 열린 21번째 에너지밸리포럼에서 조영탁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 aT,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지사 개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최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신규 지사 개소식을 열었다. (aT 제공)

### 신북방 수출확대 목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이하 공사)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신규 지사를 개소했다.

공사는 "지난 11일 블라디보스토크 신규 지사에서 개소식을 열고 수출전략을 위한 '신북방 수출확대 전략회의'도 함께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20여개 현지 진출 식품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기업 측은 높은 물류비용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대형유통업체 입점·지속적인 홍보활동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연해주의 중심도시

사이자 몽골, 카자흐스탄 등 연 3억 4000만 달러(4008억원) 규모 시장의 신북방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 도시라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공사는 올해 초 몽골과 폴란드에 임시 사무소를 차리기도 했다.

공사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케이(K) 프레스 존'을 열고 SNS 마케팅을 펼치는 한편 다음 달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케이 콘텐트 엑스포와 연계한 케이 푸드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하반기에는 공동물류센터를 설치해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10월에는 블라디보스토크 '케이 푸드 페어'를 개최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농어촌공, '어도' 사진 공모 내달 1일~9월 20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가 물고기가 드나드는 '어도'(魚道) 사진 공모전을 올해 두번째로 연다.

공사는 지난 2010년 '전국어도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하고 2013년 국가어도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강릉시 연곡천 송림보를 비롯한 전국 128곳의 어도를 정비해왔다. 공사가 집계한 어도 정비 효과에 따르면 평균 수산자원량은 10배, 경제적 가치는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어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사진 공모전을 진행한다. '어도'는 댐이나 보 등 인공적으로 하천을 막아 둔 곳에 산란·먹이활동을 위해 하천을 오르내리는 회유성 물고기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통로를 말한다. 아름다운 어도와 어도를 이용해 강을 거슬러 오르는 어류를 주제로 한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1인당 3점까지 국가어도정보시스템(fishway.go.kr)을 통해 온라인 지원할 수 있다.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자는 오는 10월 공고될 예정이다. 대상(해양수산부 장관상) 1점, 최우수상 2점(농어촌공사 사장상) 등 총 6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온라인 홍보 저씨에게 맡겨주세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16일 대전 둔산회관에서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참가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전국 7개 권역별 21명의 참가자들은 연말까지 온라인 홍보활동을 통해 사학연금제도를 알리고 공단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사학연금 제공)

##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건설공사 품질·안전 강화 나서

### KCL 호남본부와 업무 협약

농어업 생산기반을 조성·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호남본부는 16일 '건설공사 고품질 확보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1971년 설립된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

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유관기관으로, 건설재료·에너지·환경분야 등 다양한 분야 제품의 시험·검사 및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날 양 기관은 상호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의 품질시험 및 점검 ▲공사감독 및 건설현장 품질관리 담당직원 맞춤형 교육 ▲품질관리 신뢰도 향상 및 고객서비스 강화 등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으로 전남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300여 개 건설현장이 자체·시설물에 대한 엄격한 품질기준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중호 전남본부장은 "안전과 품질은 농어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 중 하나"라며 "이번 협약으로 공사의 현장품질과 안전관리의 기준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류 인기로 콘텐츠산업 수출액 88억달러 돌파

### 게임부문 80.7% 증가

한류 인기가 지속되면서 콘텐츠산업 수출액이 88억달러(10조3840억원)를 돌파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 '2018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도 기준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113조 2165억 원으로 집계됐다. 콘텐츠 매출액은 출판, 애니메이션 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게임 부문에서 매출 규모가 크고 높은 증가율(20.6%)을 보였다.

매출액 규모는 출판산업이 20조 7553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방송은 18조 436억 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광고(16조4133억원) ▲지식정보(15조4144억원) ▲게임(13조142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46.7% 증가한 88억 1444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전 산업 수출액 전년 대비 증가율(15.8%)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수출액은 방송, 광고, 영화 등에서는 전년 대비 감

소했지만, 게임(80.7%), 출판(17.9%), 음악(15.8%) 부문 등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수출액 규모는 게임산업이 59억 2300만 달러(6조9832억원·해외매출액 포함)로 가장 컸으며 그다음으로 캐릭터(6억6385만 달러)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식정보(6억1606만 달러) 음악(5억1258만 달러) 등의 순이었다.

한류의 인기가 지속되면서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5년간(2013년~2017년) 연평균 15.7%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2017년도 국내 콘텐츠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약 2.1% 증가한 64만 4847명으로 전년 대비 약 1만3300명이 증가해, 최근 5년간 약 2만500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는 출판, 음악 산업에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게임 부문에서 높은 증가율(10.7%)을 보였다.

이번 통계조사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9개 산업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2개 기관(영화진흥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한 영화, 방송 산업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집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광주역  
엔씨백화점  
광주역점  
오리거리  
아로마라이프  
성요한병원  
유동서거리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www.aroma-life.co.kr

FACE 메이크업만 하는 시대는 끝!  
이제는 BODY 메이크 UP!

☆☆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보정 속옷 12년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유기형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가공  
원적외선가공

대리점·총판문의 **1588-2219**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경일로 235 V&G빌딩 서울사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촉복빌딩(도곡동 518-9)